KIA 헥터, 역대 외국인 투수 최다연승

전반기 마지막 등판서도 승리 챙기며 올해 14승…지난해 포함 15연승 中
KBO최다 기록은 박철순 22승…후반기 부상 없을 경우 13~14경기 소화

KIA 타이거즈 헥터 노에시(30)가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승리를 챙기며 역대 외국인 투수 최다연승 기록을 세웠다.

헥터는 11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안타 8개와 볼넷 3개를 내줬지만 3실점으로 막았다.

팀이 NC의 추격을 따돌리고 7-4로 승리하며 헥터는 시즌 14승째를 달성했다. 올 시즌 17경기에 등판해 3경기에서만 승패가 없었을 뿐 단 한 차례 패전도 없이 14연승을 질주하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올 시즌 14승과 함께 지난해 10월 2일 광주 kt전 승리를 더하면 연승 기록은 '15'가 된다.이는 KBO리그를 거쳐간 외국인 투수 가운데 최다 연승 기록이다.

지난 2014년 20승을 기록한 넥센 히어로즈 밴헤켄이 보유한 14연승에 1승을 더했다. 당시 밴헤켄은 2014년 5월27일 목동 SK전을 시작으로 8월13일 부산 롯데전까지 14경기에 등판해 모두 승리하며 14연승을 기록했었다.

역대 KBO리그 최다 연승기록은 프로야구 원년 OB베어스 박철순이 가지고 있는 22연승이다. 현대 유니콘스의 정민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1연승을 달렸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승리하며 15연승을 달성한 헥터는 올스타 휴식기를 보낸 뒤 후반기 첫 등판에서 최다 연승 3위 기록에 도전한다.

삼성 라이온즈 김시진(1984~1985년), LG 트윈스 김태원(LG1994~1995년), 쌍방울 레이더스 김현욱(1997~1998년) 등 3명이 16연승 고지를 밟았다.

헥터는 전반기 14승 무패의 성적으로 다승 부문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승률 100%를 기록 중이다. 헥터는 후반기 부상 없이 보낸다면 13~14경기 정도 추가 등판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현재 페이스라면 박철순이 가진 22연승 기록도 불가능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뉴시스

지난해 'A' 오승환, 전반기 평점 'C'…美언론 평가

"최근 9G 4개 홈런 허용…감독 당황하게 만들어"

올 시즌 전반기 다소 부진했던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미국 현지 언론 평가에서 평점 'C'를 받았다.

해당 매체는 지난 시즌 오승환에게 'A'를 줬다.

미국 지역 언론인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는 12일 올 시즌 세인트루이스 주요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하며 오승환에게는 평점 'C'를 줬다.

매체는 "오승환은 지난해 0.190의 피안타율을 기록하며 팀의 마무리투수로 승격했지만 올해는 0.270의 피안타율과 함께 0.442의 피장타율을 기록했다"며 "지난해 탈삼진/볼넷 개수는 103/18이었지만, 올해는 33/11"이라고 지난 시즌 성적과 직접 비교했다.

이어 "전반기 오승환은 1승 4패 평균자책점 3.54을 기록했다. 21번의 세이브 기회에서 18번을 성공시켰다"면서 "최근 9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허용해 경기 막판 마이크 매시니 감독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오승환은 올 시즌 시작부터 팀의 불박이 마무리 보직을 맡으면서 40세이브 이상을 거둘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고전했고, 전반기를 마친 현재 대다수 지표에서 지난 시즌과 비교해 크게 나빠졌다.

평균자책점은 1.92에서 3.54로 두 배 가까이 뛰었고, 피안타율은 1할대에서 0.276로 상승했다. 이닝당출루허용률 역시 0.92에서 1.38로 높아졌다.

7월 들어서는 트레버 로젠탈에게 잠시 마무리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로젠탈 역시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다시 오승환에게 뒷문 단속의 임무가 주어졌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다.

후반기 오승환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한다면 집단 마무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올 시즌을 마치고 재계약까지 앞둔 상황이어서 오승환으로서는 후반기 활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K리그 수원 김민우, 19R MVP 선정

득점 · 패스성공률 · 공격형 경합 성공 등 좋은 모습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수원 삼성의 김민우가 19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은 지난 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30분경 매튜의 패스를 통렬한 원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린 김민우가 MVP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득점으로 수원은 제주에 1-0 신승을 거두고 리그 4위로 도약했다.

김민우는 득점(1득점), 패스성공률(75%), 공격형 경합 성공(3/4회) 등 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K리그 지수 총점 270점을 기록했다.

베스트11 공격수 부문에는 송승민(광주), 양동현(포항)이 선정됐다. 미드필더 부문에는 김민우(수원)를 포함해 유고비치(전남), 이근호(강원), 로페즈(전북)가 이름을 올렸다.

수비수에는 매튜(수원), 김오규(강원), 김민재, 최철순(이상 전북)이 뽑혔고 골키퍼 부문은 조현우(대구)가 선정됐다.

챌린지(2부리그)는 수원FC의 이승현이 MVP로 선정됐다. 이승현은 지난 10일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0분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전북 최강희 감독, 6월의 감독으로 선정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의 최강희 감독이 '6월 스포츠투아이 K리그 이달의 감독'에 선정됐다.

최 감독은 6월에 열린 클래식 4경기에서 3승1무로 승점 10점을 쓸어담으며 팀의 리그 단독 선두(11승5무3패 · 승점 38점)를 이끌었다.

전북은 최 감독의 지휘 아래 4경기에서 12골을 넣으며 우승 경쟁에서 앞섰다.

K리그 공식기록통계업체이자 스포츠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스포츠투아이가 함께하는 K리그 이달의 감독상은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평가회의의 경기 분석 결과를 통해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22개 구단 감독 중 매월 1인을 선정한다.

이달의 감독에게는 기념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지고, 연말 최우수 감독상 선정 시에도 자료로 반영된다.

뉴시스

류승우, 친정팀 제주 유나이티드 복귀

2013년 제주 입단 해 이듬해 독일 레버쿠젠 위탁 임대

류승우(23)가 친정팀 제주유나이티드로 돌아온다.

제주는 11일 전력 강화를 위해 미드필더 류승우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인 계약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황일수를 중국슈퍼리그 옌볜 푸더로 떠나보낸 제주는 류승우의 영입으로 전력 누수를 최소화했다.

류승우는 2013년 8월 터키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2골을 터트리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해 자유계약으로 제주에 입단한 류승우는 이듬해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으로 위탁 임대됐다. 2014년 12월 레버쿠젠으로 완전 이적한 류승우는 독일 2부리그에서 임대 생활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

류승우는 아인트라흐트 브라운슈바이크(2014~2015)와 아르미니아 빌레펠트(2015~2016)를 거쳐 2016~2017시즌 헝가리 1부리그 페렌츠바로시에서 임대 활약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에서는 3골3도움으로 신태용호의 8강 진출을 견인하기도 했다.

3년 6개월 만에 제주로 돌아온 류승우는 "K리그에 다시 돌아온다면 무조건 제주로 온다고 생각했었다. 제주를 떠났을 때 팬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못드렸는데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3월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류승우는 재활이 끝난 뒤 그라운드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MVP는 한방' 카노, 생애 첫 올스타 MVP

연장 10회 결승 솔로포…AL 올스타 2-1 승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로빈슨 카노(35 · 시애틀 매리너스)가 홈런 한방으로 팀 승리와 생애 첫 올스타전 MVP의 주인공이 됐다.

카노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펼쳐진 2017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1-1 동점이던 연장 10회초 결승 홈런을 때려내며 아메리칸리그 올스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진 가운데 카노는 호세 알투베(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조나단 스쿱(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이어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3번째 2루수로 교체돼 기회를 잡았다.

7회 첫 타석에서는 브래드 핸드(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3구 삼진을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다.그러나 정규이닝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연장에 돌입했고 10회초 카노에게 기회가 왔다.

선두타자로 두 번째 타석을 맞은 카노는 웨이드 데이비스(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날렸다.

자신의 8번째 올스타전 경기 만에 쏘아 올린 첫 홈런포이자, 5년 연속 아메리칸리그 올스타의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승 홈런이었다.

연장전까지 진행된 올스타전에서 홈런이 나온 것은 지난 1967년 토니 페레즈 이후 50년 만이다.

이 홈런포 한 방으로 카노는 8번째 올스타전 출전 만에 생애 첫 올스타 MVP를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서 양팀 투수진은 타자들을 윽박지르며 4회까지 0의 행진을 이어갔다. 내셔널리그 올스타 선발 투수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와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선발 투수 크리스 세일(보스턴 레드삭스)는 물론 불펜진도 점수를 내줄 생각이 없었다.

5회 아메리칸 리그가 스쿱의 2루타에 이은 미구엘 사노(미네소타 트윈스)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그러자 내셔널리그 올스타는 6회말 1사에서 야디에르 몰리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어빈 산타나(미네소타 트윈스)로부터 솔로 홈런을 때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양팀 모두 리그 정상급 셋업맨과 특급 마무리투수를 마운드에 올리며 다시금 홈플레이트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연장전에 돌입한 끝에 카노가 시카고 컵스의 마무리 데이비스에게 패전의 멍에를 안기는 홈런을 때려내며 승부를 갈랐다.

황희찬, UEFA 챔스리그 데뷔골 폭발

소속팀 잘츠부르크, 하이버니언스에 3-0 승리

황희찬(잘츠부르크)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기록했다.

황희찬은 12일(한국시간) 몰타 파올라 하이버니언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16~2017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 1차전 하이버니언스FC(몰타)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35분 추가골을 기록했다. 잘츠부르크는 베리샤의 선제골과 미나미노의 골을 더해 3-0으로 승리했다.

황희찬은 이날 선발 출전해 약 7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다부르와 함께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된 황희찬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하이버니언스의 골문을 노렸다.

잘츠부르크는 전반 32분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베리샤가 성공시키며 앞서나갔다.

황희찬은 전반 34분 중원에서 올라온 로빙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며 추가골을 뽑아냈다.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이었다.

잘츠부르크는 후반에도 공세를 퍼부으며 하이버니언스를 몰아쳤고, 후반 9분 미나미노가 쐐기골을 뽑아내면서 3-0 승리를 완성했다.

뉴시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